

분별하라! 한, 일 교과서 왜곡

교과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이고, 배우의 기준이 되는 책이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것이 모두 진실이라 믿는다. 따라서 왜곡되거나 편향적인 내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일본, 교과서 왜곡 이유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4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심사 통과를 발표하면서 독도를 ‘죽도’로 표기하거나 징병·강제동원 기술을 축소하는 등 기존의 역사 왜곡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일본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역사,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 강제 연행’과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표현을 삭제했으며, 민간 교과서에서 기술했던 ‘강제 연행’ 혹은 ‘강제 징용’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일본 정부 생각을 반영하여 ‘동원’ 혹은 ‘징용’이란 단어로 수정했다.

일본은 1982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사건 이후, 1986년의 <신편 일본사>(원서방) 왜곡, 2001년의 후소사(부상사)를 비롯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왜곡, 2002년 <최신 일본사>(명성사)의 왜곡, 지금까지 여전히 한국에 대하여 잘못된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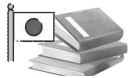
일본은 실질적으로 1차 아베 내각인 2006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 기술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이것은 아베 총리가 임각하자마자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한 ‘교육기본법’ 개정 때 이미 예견되었다.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기술을 점차 확산시켜 온 것은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16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일본 내각부는 2차 아베 내각 때인 2013년부터 격년으로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 독도에 대해 알고 있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한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60.7%에서 2019년 77.7%로 17%포인트나 늘어났다. 독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일본인 10명 중 8명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 국민의 역사 인식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토대가 형성된다. 이를 통해 볼 때, 미디어뿐 아니라 교과서 등을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독도가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 중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식민 침탈과 만행을 미화시켜 일본이 반인륜적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이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한국 역사 교과서, 기독교 폄하 및 이슬람 편향

2025년 시행되는 2022 교육과정의 세계사와 국사 교과서에는 이슬람 세계관을 중시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세계사 교육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일본 초등교과서 한국사·독도 기술 내용 변화

한국사 관련 내용		
출판사	현행(2019년 검정)	새교과서(2023년 검정)
일본문교 출판 (사회 6학년)	히데요시가 죽자 병력을 되돌렸다. 히데요시가 조선에 대군을 보낸 결과, 조선의 국토는 황폐해지고 많은 조선인이 희생됐다.	히데요시가 죽자 다이묘들은 병력을 되돌렸다. 이 사건은 도요토미의 힘이 쇠퇴하는 계기도 됐다.
도쿄서적 (사회 6학년)	식민지가 된 조선 학교에서는 일본어 교육이 시작됐고, 조선 역사는 가르치지 않아 사람들의 긍지에 깊은 상처가 됐다.	식민지가 된 조선학교에서는 일본어 교육이 시작됐고, 조선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일본문교 출판 (사회 6학년)	1923년 9월 1일 간토지방을 큰 지진이 덮쳤다. (중략)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의 헛소문이 유포돼 많은 조선인이 살해됐다.	관련 내용 삭제
도쿄서적 (사회 6학년)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 (중략)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됐다. (중략)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교육출판 (사회 6학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
독도 관련 내용		
도쿄서적 (사회 5학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5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도쿄서적 (지도 3~6학년)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

자료: 일본문부과학성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게 해야 한다. 그러나 ‘2022년 세계사 교육과정’의 목차와 내용에 이슬람 세계관 중심 교육이 드러나고 있다. 반면 기독교 역사는 배제되거나 축소되었다. 천재교육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종교부문 기술’에 있어 기독교에 관한 기술이 2페이지 분량에 불과하며, 크리스토포 세계 내용에서 기독교의 핵심 역사가 전부 사라졌다. 반면 이슬람교는 총 16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기술한다.

<중학교 역사1>,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이슬람 최고의 사원인 카바 신전, 이슬람교의 경전 꾸란, 이슬람교 종파 수니파와 시아파에 대한 내용과 그림이 서술돼 있다. 교과서 속에 서술된 “할랄과 하람”은 이슬람교의 꾸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무슬림들의 종교적 사항이며, 급식 메뉴를 보고 하람에 해당하는 음식이 있는지 찾아보자”고 교과서에 언급하는 것도 역시 이슬람 종교편향적 서술로 해석된다.

동일하게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가 꾸란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예수는 위대한 예언자일 뿐 신의 아들은 아니라는 이슬람 측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서술한다.

예수님에 대한 꾸란의 기록은 이슬람 포교용 소책자에서 볼 수 있듯,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할 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삼위일체 등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함으로써 적그리스도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기독교 폄하)

분류	내용
이슬람 포교용 소책자	이슬람은? ...이들 중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알라의 마지막 메시지는 꾸란에는 위의 25명의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담겨 있다.
	알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같은 신을 믿는다·이슬람에서는 삼위일체설과 알라의 성육신화를 믿지 않는다.
	예수 알라께서 보내신 다른 모든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는 인간이다. 신의 아들도 신과 동격인 존재도 아닌 인간이다·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
추천도서	꾸란에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도 있어·이슬람은 인간과 알라 사이에 어떤 중재자나 중간자도 인정하지 않아요·원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박히는 예수님 같은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세계사	금성 출판사 알라는 모세에게 성서를 주고·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권능을 내려 성령으로 그를 보호·모세와 예수, 예언자들이 계시받은 것들을 믿는다.

핵심사항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이 이슬람 측 주장을 그대로 여과 없이 서술하는 것은 이슬람을 홍보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것이며,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길을 막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미혹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웃고 삽시다

스트레스의 시대입니다. 우리 입에서 호흡처럼 오르 내리는 단어가 ‘스트레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하고 하면서 AC를 달고 삽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의 지시와 업무요청 때문에 스트레스로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직으로 불림받은 자’들도 스트레스가 심해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받는 사람만 있지, 누가 주는지, 어디서 받는지는 모호한 모두 ‘피해자들’의 사회가 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서로를 찌르며(?) 또 다른 파생 상처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항상 화가 난 사람들이 많고, 건드리면 폭발 직전의 시한부 인생들이 많습니다. 마치 터트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 인양, 사회는 ‘분노히스테리신드롬’이 번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말일까요?

퍼지지 않으면 죽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낙하산이고 다른 하나는 얼굴입니다. 옛말에 “일소 일노 일노 일노”(一笑一少 一怒一老)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격언에는 웃는 얼굴이 아니면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 전 발행된 프랑스 보건지 ‘상페’라는 잡지에 따르면 프랑스 의사들이 뽑은 가장 좋은 약은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생기고, 따라서 우리 몸에 침입해 들어오는 모든 암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을 물리쳐 줄 에너지를 줍니다.

최근에는 웃음요법으로 병을 고치는 내적치유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외국 의학팀이 연구한 결과 만약 하루에 열다섯 번씩 웃는다면 모든 환자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진통 효과도 있으며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고혈압과 뇌경색, 치매를 방지한다는 보고입니다. 10분간 크게 웃으면 백혈구(신체를 병으로부터 지켜주는 병사들)가 30%나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느 의사가 암 환자 10명을 데리고 희극극장에 가서 즐겁게 웃도록 한 후, 웃기 전과 웃고 난 후의 혈액을 채취해 검사해보았더니, 그러자 환자 중에 NK세포(암과 난치병에 대한 면역력)가 낮았던 사람은 높아지고, 너무 높았던 사람은 적당

히 내려와 정상수치로 돌아왔으며 그 밖의 면역력도 양호한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척추강직증’이라는 난치병에 걸린 미국의 저널리스트 노마커즌즈는 코미디 필름을 모아서 매일 그것을 보고 웃었더니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루 4백 번을 웃는 어린아이에 비해 성인이 웃는 횟수는 불과 15번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악동하는 생명현상에는 웃음이 전신에 신경과 혈류 흐름을 자극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웃으면 행복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엔돌핀 분비가 촉진돼 통증을 줄이고, 근육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웃음을 우리의 직장에 가정에 전염시키면 어떨까요.

가장 생존률이 높고 안전한 직업으로 1위에 레크리에이션 치료전문가, 15위 내과·외과 의사, 34위 큐레이터, 42위 성직자, 271위 판사, 282위 경제학자들이 조사되었습니다. 직업을 탓하기 전에 웃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됩니다.

캐나다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 ‘직원의 사기가 15% 올라가면 생산성이 40%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웃는 직원’과 ‘웃지 않는 직원’을 비교해 보았더니 스트레스가 있어 웃지 않던 직원은 불만, 의료비, 산재, 노사분규 등이 30% 증가했고, 웃는 직원은 매출이 30% 증가한 결과가 나온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 하나가 바로 웃음입니다. 동물은 웃지 못합니다. 간혹 눈물을 흘리는 동물은 있지만 웃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웃음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치유 효과 긍정의 나비효과를 불러옵니다.

단거리선수인 칼리이스는 80미터 지점까지는 4위 정도로 달리다가 마지막 20미터 사이에서 1위가 되는 것이 그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는 80미터 지점에서 상긋 웃으면 엄청난 파워가 집중되어 1위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웃음은 의식해서 일부러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웃음은 영혼의 해방이요, 우리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죄에서 구원받

은 자의 기쁨의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지면서 사람들의 웃음 대신에 적개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웃음의 아이스브레이크로 사회에 긍정에너지를 보낼 것입니까? 이것은 웃을 상황이 없는 사람에게는 웃을 기회가 평생 없을지도 모릅니다.

웃음도 결단입니다. 웃기로 결단합니다. 상황과 관계 없이 나는 웃으며 이를 맞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즐기기로 결단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말대로 “기쁘니까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니까 기뻐지는 것”입니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의 전 CEO 잭 웰치는 20년 재임 기간 60배를 이루고 나서 한 말이 “나는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놀았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민족의 새로운 ‘민족개조론’을 부르짖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년에 평양에서 오십 리 떨어진 태보산에 조그만 산당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는 산당 입구에 문을 세우고 “빙그레, 빙그레, 방그레”라고 써 붙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아이는 방그레, 청년들은 빙그레, 노인들은 방그레 웃는 민족으로, 웃는 얼굴로 새 민족을 이루자”고 호소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결기와 기개는 경직된 율법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부부 사이에 함께 웃지 않는다면 부부 관계에 적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이제 적신호를 노란 신호로, 녹색 신호로 바꾸기 위해 오늘 자그마한 미소로부터 시작해봅시다.

유대인의 지혜를 모아 놓은 ‘탈무드’에서도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성공지기
박인용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 ‘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w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김정은의 불장난 핵 올인

북한은 다양한 핵무기를 과시하고 있다. 핵무기 과시로 한반도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현실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자체 핵 보유는 할 수 없게 되었다. 핵의 공포에서 한반도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北 전술핵 올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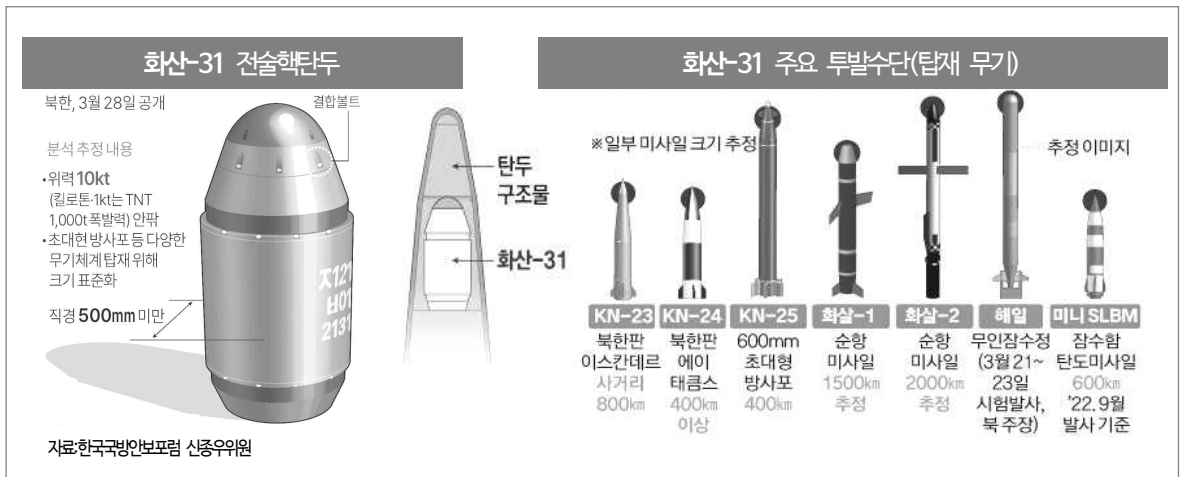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넘게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으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핵물질과 핵무기 투발수단을 밤낮없이 개발해왔다. 미사일 도발 역시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포함해 2022년에만 총 24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한국의 대북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는 동안 북한은 꾸준히 핵 개발에 몰두했다. ‘핵 무력 법령’을 통해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강조했고,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는 상황으로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는 핵탄두의 경량화·소형화 등 전술핵 사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해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전술핵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가 진전된 것이다.

전술핵이란 통상 대도시 전체를 초토화해 전쟁의 양상 자체를 바꾸는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은 핵무기를 의미한다. 군사시설 등 특정 목표물을 타격하는 용도이다. 수십kt(킬로톤, 다이내마이트 1000t에 해당)의 파괴력을 가진 핵탄두를 순항미사일이나 야포 등 단거리 투발수단에 장착하거나, 폭격기·항공기 등에 핵폭탄을 탑재해 공중투하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전술핵은 절대적인 병력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서 실제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핵이었다. 전술핵은 한반도에 배치되어 절대다수의 북한군에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한 미군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술핵이 철수한 지 30여 년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물론 수적으로 우세를 자랑하던 북한이지만, 세계적 수준으로 첨단화된 한국 군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전략핵무기는 전쟁 자체를 막는 위협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스텔스 전투기나 이지스구축함, 네트워크 능력으로 연결된 육군 기계화 전력 등 첨단전력에 직접적인 대응은 어렵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로 전술핵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통상 핵무기는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다. 핵탄두, 운반 수단(미사일) 그리고 플랫폼이다. 북한은 최초로 핵 WMD(대량살상무기) 능력을 추구하면서 투트랙전략을 채택했다. 운반 수단과 플랫폼을 하나로 하여,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공격 능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편, 핵탄두는 또 다른 개발의 주축으로 추진되었다. 통상 운반 수단과 플랫폼 개발이 핵탄두 개발보다 빨랐다. 그래서 북한이 1980년대 중반부터 스커드-B와 C, 노동미사일 등을 개발



해왔지만, 미사일에 장착할 만한 핵탄두가 공개된 것은 2016년 3월이 처음이다.

핵심은 핵탄두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물질로 만들 수 있는 핵탄두는 최대 100여 개 수준이다. 과거에는 KN-23이나 KN-24 같은 이름 대형 미사일에만 탑재할 전술핵탄두를 만들 것으로 예상됐는데, 김정은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600mm KN-25 방사포나 심지어 순항미사일에까지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탄두가 필요했다.

北 전술핵탄두 공개, 작지만 위험하다

북한은 2023년 3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깜짝 공개했다. 핵탄두는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장치이다. 이 핵탄두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끝에 실어서 쏜다. 잠수함이나 어뢰에 태워서 쏠 수도 있다. 북한이 공개한 ‘화산-31’이 바로 ‘전술핵+핵탄두’이다. 작은 핵탄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기가 40~50cm 정도로 엄청 작아졌다. ‘화산-31’이 모형이 아닌 진짜라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제 개발한 다양한 미사일·잠수함에 전술핵탄두를 건전지 갈아 끼우듯 바꿔 끼워서 핵무기를 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선언, 북핵 위협에 실질적 방어막 되나?

한미정상회담 후 나온 워싱턴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체 핵 보유 옵션을 명시적으로 포기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의 핵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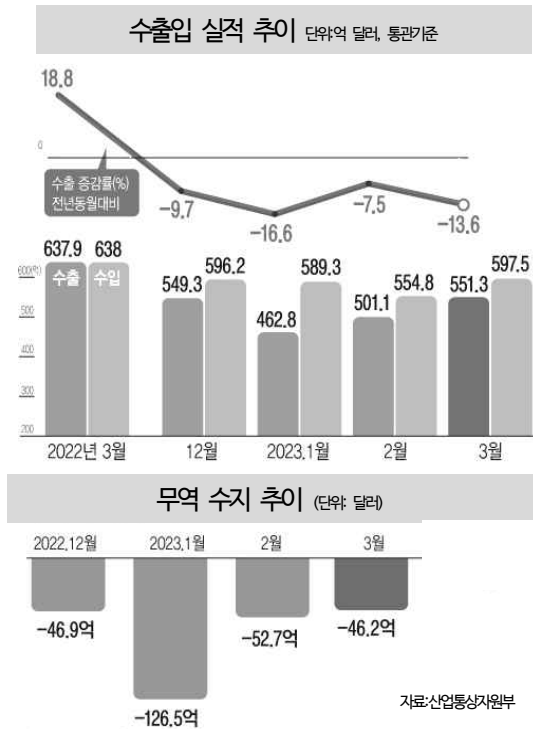
선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자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으며,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다름 없는 표현이다. 또한 한미가 NPT 회원국인 만큼, 나토식이든, 그 어떤 식이든 핵공유 협정을 맺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미국의 의사 표현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핵 공격을 가해도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내세워 유사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의 국방 수호를 타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급증하면서 껌껌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핵 개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이 76.6%였다.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결정을 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 전술핵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제7차 핵실험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할 수 있는 권리마저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다.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한반도에 핵이 사라질 길 누구나 원한다. 그러나 이미 북한에서는 핵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고,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고려하면 그 핵의 타격점이 우리나라나 미국일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에 갇혀 자주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의 선처를 기다리는 형태의 국방정책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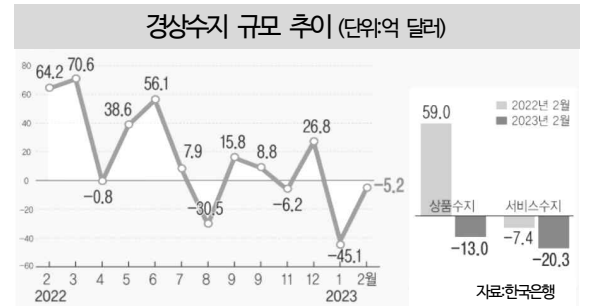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나?

한국 경제 곳곳에서 위기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 경제전망' 보고서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을 전망을 기존 2.1%에서 1.5%로 크게 하향조정했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 우리 경제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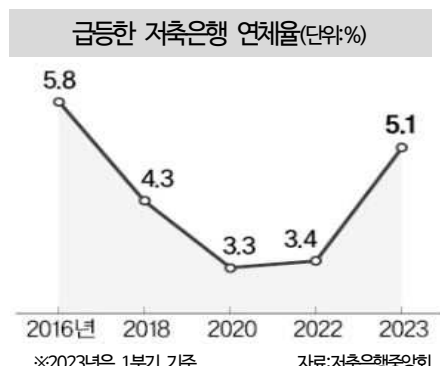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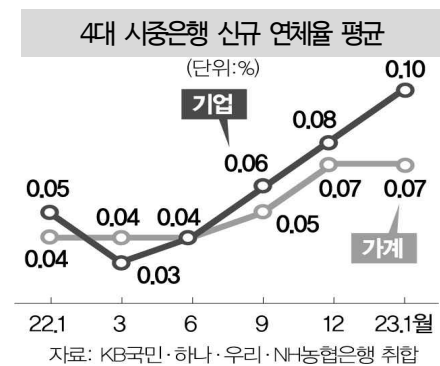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위기 경고음

2023년 1월 127억 달러 적자로 역대 최대 월간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2월에도 53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14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반도체와 중국'이 핵심이다.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작년 4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은 108억1800만 달러였으나 올해 4월에는 63억8000만 달러로 1년새 41%나 급감했다. 금액으로는 44억3800만 달러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129억4900만 달러에서 95억1600만 달러로 1년새 26.5% 하락했다. 금액으로는 1년과 비교해 34억3300만 달러 감소했다. 결국, 반도체 수출을 늘리거나, 중국 시장 수출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역수지 개선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반도체의 주력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므로, 중국 관계가 단순히 경제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보여주는 경상수지도 지난 1월 45억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수출은 반도체와 철강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14.9% 줄어든 480억 달러에 그쳤다. 수입은 1.1% 증가한 554억6천만 달러였다. 이로써 상품수지는 1996년 1월~1997년 4월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계속 적자면 다른 부문에서 흑자를 내더라도 전체로는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다. 상품수지는 무역수지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해외 가공, 중계무역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은 데도 적자다.



금융권 연체율 비상... 9월 부실 위험

은행권부터 카드사까지 전체 금융권의 연체율이 올해 들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0.27%에서 올해 1분기 0.34%로 0.07% 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컸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각각 0.28%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0.06% 포인트씩 상승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말 0.16%에서 올해 1분기 0.20%로 상승했다. 저축은행은 평균 연체율이 5%를 넘었다. 최근 저축은행 중증악화는 올해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이 5.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3.4%에서 1.7% 포인트나 뛴 수치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5%를 넘어선 것은 2016년(5.8%) 이후 처음이다. 특히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관련 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연체율이 급격히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은행권은 2020년 초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금융지원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금융권과의 자율 협약에 따라 최장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 유예는 최장 1년간 다시 미뤘다. 재연장 결정이 없는 한 오는 9월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은 종료된다.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코로나 금융지원 관련 원금이나 이자 납기가 연장된 대출의 잔액은 36조 6206억 원(만기연장, 원금상환 유예, 이자유예 중복)에 이른다. 이중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은 1조 8071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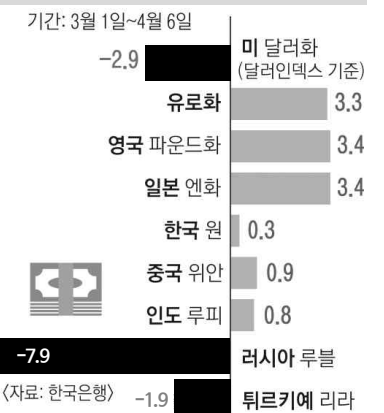
달러 원화 동반 약세

통상적으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달러가 약해졌음으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4.30% 상승(원화 가치 하락)해 달러 약세와 원화 약세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의 원화가치는 2002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비상 경제상황에서나 볼 수 있었다. 더구나 미국 금리인상이 정점을 찍고 있다는 글로벌 합의가 형성되는 와중에 유독 원화가치만 상대적으로 처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달러화 약세에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국내 경제의 부진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는 올 4월까지 계속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3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1억 3900만 달러 적자로, 이 가운데 대중 적자가 19억9600만 달러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최근의 원화 약세는 우리나라 경제

주요국 화폐가치 변동 추이(단위: %)



펀더메탈 약화, 특히 예상보다 부진한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대중 수출과 반도체 수출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도 올해가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224억 달러에 달해 작년 전체 무역수지 적자폭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을 기록해 환율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화값 절하는 수입 원자재와 상품 가격을 끌어올려 결국 물가상승 압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고물가 악순환이 깊어지는 와중에 불황이 지속되는 스테크플레이션이 엄습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없다는 게 중론이다.

스마트폰, 이제는 ‘접는’ 게 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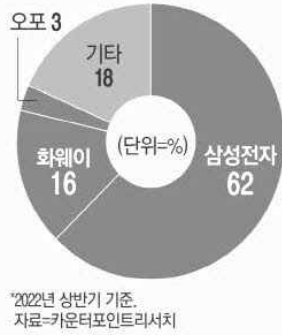
스마트폰 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뜨겁다. 시장조사업체들은 올해 폴더블폰 시장 규모가 2140만 대(IDC에서 2270만 대(카운터포인트리서치) 규모로 전년보다 50%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폴더블폰 시장 경쟁 고조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2019년 삼성이 실험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대중화 가능성을 키우자 구글과 애플이 폴더블폰 시장 지분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전을 시작했다. 구글이 첫 폴더블폰 모델 ‘픽셀 폴드(Pixel Fold)’를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픽셀 폴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Z폴드 시리즈에 적용한 것과 같은 인폴딩(디스플레이가 안으로 접히는 기술)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내구성 높은 힌지를 적용했으며 무게는 283g로 갤럭시 Z폴드4(263g)보다 20g 무겁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5.8인치로 갤럭시 Z폴드4(6.2인치) 대비 작지만 메인 디스플레이는 7.6인치로 같다.

현재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독점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은 82%에 달한다. 폴더블폰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선점한 것이 시장 독점 배경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최근 경쟁자들 시장 진입 및 추격에 따라 출하량이 차츰 내려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플립·폴드5 시리즈를 전작 대비 개선한 형태로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U자형 힌지(경첩)를 디스플레이가 안으로 접혀 들어가는 물방울 힌지로 변경해 주름을 최소화하고 두께도 더욱 얇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았던 플립을 중심으로 변화가 예상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



폴더블폰 시장 주요 기업 동향

삼성전자	하반기 갤럭시 Z 폴드5·플립5 출시 예정
구글	6월 '픽셀 폴드' 출시 예정
애플	폴더블 관련 기술 특허 지속적으로 출원 중
화웨이	5월 23일 3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 X3' 공개 예정
오포	작년 12월 클램셀 형태 '파인드 N2 플립' 출시
비보	4월 '비보X폴드2' '비보X플립' 공개
아너	2월 폴더블 스마트폰 '매직 V5' 전 세계 출시



구글의 '픽셀 폴드' 예상 모형
[사진 제공=렛츠고디지털]

된다. Z플립5는 전작 대비 커버 디스플레이가 2배 커지며 결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애플은 내년에 폴더블 아이패드, 2025년에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폴더블 스마트기기에 필요한 관련 기능으로 이용자가 스크린 뿐 아니라 기기의 여러 부분을 터치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특히 랩어라운드 스크린이 있는 폴더블폰 또는 태블릿PC의 도면도 특허에 포함됐다. 랩어라운드 스크린은 기기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기기를 접을 때 가능하다. 애플은 삼성에 비해 6년 뒤쳐졌지만, 업계에선 애플의 브랜드 파워와 고객 충성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삼성 폴더블폰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 업체들의 폴더블폰 시장 진출이 두드러진다. 오포가 출시한 폴더블폰 파인드 N2 플립은 3.26인치의 대형 외부 디스플레이로 날씨나 알림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다. 최대 40만 번 접을 수 있는데 하루에 100번을 접고 펼치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오포의 주장이다.

화웨이의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는 화면을 펼치면 7.9인치, 접히면 6.45인치의 크기로 각각 7.6인치, 6.4인치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Z폴드4보다 크다. 비보X폴드2는 좌우로 접히는 형태이며, 비보X플립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Z플립4와 같은 클램셀(조개껍데기) 모양이다. 특히 비보X플립의 주요 색상은 보라 퍼플과 유사한 색상인 연보라색이고, 가로로 배치된 외부 디스플레이가 전면의 절반을 넘게 차지해 갤럭시 Z플립4보다 비중을 키웠다.

내 인생의 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14-15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김명림

(월드와이드교회 중등부/청년부 전도사)



엄마의 기도는 저와 두 남동생의 어린 시절을 평범하지만 특별하고, 가난했지만 만족을 배우며 성장해가는 큰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라던 저에게 청소년 그 시절 교회 부흥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때, 저에게 인생의 갈림길에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훈련을 받던 중, 내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땅의 끝이 여호와를 경

외하는 그 날을 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15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 내 계명을 지키리라” 다른 거창한 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은 많이 힘들었고, 버겁고, 아팠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수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준비하던 중 큰 교통사고로 일 년의 시간을 치료받던 때도,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여 나아가고자 선택했던 눈 수술이 의사의 실수로 불편함이 생겨 이 길을 가지 못할까 두려움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십니다. 헌신과 부르심을 위해 주신 말씀이 이제는 위로와 능력이 되어 저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단 한 순간의 후회함도 없이 동행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

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깝지 않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젊은 세대들을 향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도록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리로서가 아닌 구원의 고백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새 생명을 심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사랑받는 세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오늘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변함없는 주 사랑을 찬양합니다.

K-웹툰, 세계를 공략하다

〈킹덤〉, 〈스위트홈〉,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최근 넷플릭스에서 히트한 한국 드라마의 공통점은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는 것이다. K-웹툰은 탁월한 스토리텔링으로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하게 각색되며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가장 뜨거운 대중문화 아이콘으로 떠오른 웹툰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웹툰의 탄생

웹툰은 웹(web)과 카툰(cartoon, 만화)의 합성어로, 대한민국에 정착된 고유의 웹코믹 플랫폼을 통칭한다. 웹툰은 종이로 인쇄 출판된 만화시장이 붕괴된 상태에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PC의 보급과 정부 주도 아래 초고속 인터넷망의 전국 확산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은 포털의 춘추전국시대로 각 포털은 이용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만화를 연재했다. 다음, 파란, 엠파스, 네이버 등은 게시판에서 인기를 끌던 만화, 개인 홈페이지에서 일상의 경험과 감상을 표현한 만화 등을 한곳에 모아 독자들이 편히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당시 포털에 연재되던 만화들은 에피소드별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에세이만화나 개그, 일상 장르, 시사만평 등이 대부분이었고 독자를 유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됐기 때문에 무료로 공개됐다.

웹툰의 유료화

2010년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웹툰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웹툰 전문 사이트가 생기게 되었다. 2013년에 개설된 레진코믹스라는 웹툰 전문 사이트는 웹툰의 새 역사를 열었다. 레진코믹스가 웹툰 유료화를 시작했다. 포털의 사용자 유입 수단에 불과했던 웹툰 콘텐츠 자체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웹툰은 작은 화면으로 감상 가능한 서사의 표준을 새롭게 정립했고 그 파급력은 향상됐다. 특히 모바일의 간단한 과

금 시스템은 유료결제 과정의 피로감을 덜어주었다. 2014년 뒤늦게 웹툰 비즈니스에 뛰어든 카카오페이가 성공적으로 국내 시장에 안착한 것은 스마트폰의 간편한 과금결제 시스템을 토대로 '기다리면 무료' 과금 모델을 도입한 덕분이었다. 몇 화를 무료로 제공한 뒤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무료로 제공하는 이 방식은 기다리지 못하고 유료결제를 하는 독자들을 공략한 성공적인 수익모델이 되었다.

주 1회 이상 웹툰 이용 빈도 (단위: %)	웹툰 유료 결제 경험 (단위: %)
2022년 68.9	2022년 45.7
2021년 66.9	2021년 44.3
2020년 63.4	2020년 43.6

웹툰의 글로벌화

전 세계의 만화시장 규모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일본과 2위의 미국은 출판만화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디지털 만화로 서비스되기도 하지만 단행본 만화의 전자책 버전이 다수를 차지한다. 일본과 미국의 만화에 심취해 있는 독자들은 새로 스크롤 연출과 웹 매체의 문화를 반영한 스토리텔링에 대해 낯설게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웹툰을 경험하게 만드는 일은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사의 SNS망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웹툰을 서비스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킨 후 일본, 북미, 유럽 지역 등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된 '내 ID는 강남미인!'이 태국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기행기 작가의 웹툰 '내 ID는 강남미인!'을 원작으로 하는 태국 드라마 '뷰티 뉴비'가 2024년 초 방영된다고 한다. 뷰티 뉴비는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는 것이 아니라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간 사례와 차별화된다. '내 ID는 강남미인!'은 지난 2018년 국내에서 TV 드라마로 제작된 바 있다.

네이버웹툰 측은 "지식재산권(IP)을 영상화하기 위한 글로벌 제작사의 러브콜이 늘고 있다"며 "최근 미국·일본·동남아·중국 등 해외에서도 웹툰·웹소설 영상화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네이버웹툰의 원천 IP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웹툰 '가우스전자'를 원작으로 하는 동명의 드라마가 지난 2월 중국에서 공개됐다. 또 웹툰 '이두나!'도 중국에서 애니메이션으로 공개를 앞두고 있다.

세계 웹툰 시장 전망

한국 웹툰에 허점을 찔린 만화 종주국 일본이 방대한 인력풀과 전 세계에 구축한 팬덤을 토대로 대대적인 '웹툰 반격'을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일본보다 발 빠르게 웹툰 시장을 장악했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QY리서치의 '글로벌 및 미국 웹툰 시장 보고서 및 예측 2022~2028'을 보면 현재 웹툰 시장은 네이버·카카오·NHN 등 한국 기업이 휘어잡고 있다. 이들 상위 3사의 전 세계 점유율은 49%를 넘는다. 아시아·태평양 점유율은 약 71%에 달하며 북미 약 15%, 유럽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K-웹툰의 역사

■ 웹툰의 시초-1998년 권운주 작가의 '스노우캣'

-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일상을 그린 일기만화 올림
- 만화 칸을 없애고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새로운 연출법 도입



■ '디지털 조선일보' 만화조선 오픈

- 박광수의 <광수생각> 디지털화해 업데이트

■ 2003년 다음, '만화속세상' 웹툰코너 개설

- 본격적인 웹툰시대 열림
- 새로 스크롤을 활용한 작품 강풀 작가의 '순정만화'



■ 2005년, 네이버 웹툰 서비스 출시

-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 김규삼 작가의 '입시명문사립 정글고', 워니, 침묵 작가의 '골방환상곡' 대 히트
- 2010년 '치즈인더트랩', '신과 함께', '가우스 전자' 등 길러 콘텐츠들이 연이어 연재되면서 네이버 독주 체제

■ 2006년, 강풀의 <아파트> 영화화

- 웹툰이 영화, 드라마, 연극 등 OSMU

■ 2008년, 아후 카툰세상 런칭

- 이말년, 귀귀, 기안84 등 탈형식 작가 영입

■ 2009년,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반 웹툰 서비스 시작

■ 2012년, 부분 유료화 시작

- 2012년 후반을 기점으로 국내 웹툰 플랫폼 포화상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진출 본격 시작

■ 2013년, 웹툰 유료화 레진코믹스 탄생

- 레진코믹스 웹툰 유료 서비스
- 2014년 매출 100억 원을 기록하고 2016년 4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내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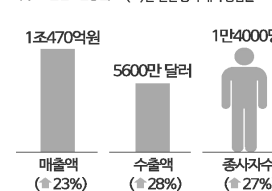
■ 2014년, NHN엔터테인먼트 일본 내 웹툰 서비스 '코미코' 오픈 웹툰 개재

■ 2018년, 웹툰 플랫폼 전성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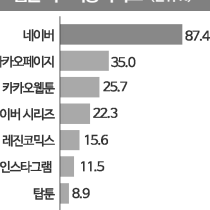
- 40여 개의 웹툰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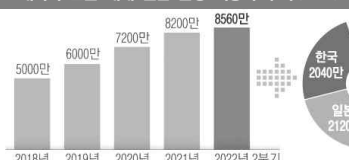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웹툰 산업 결산
(자료: 콘텐츠진흥원)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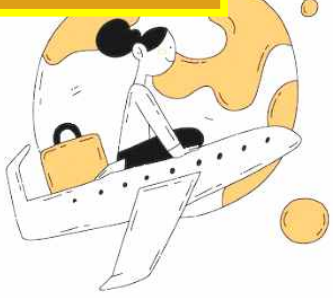


웹툰 주 이용서비스 (단위: %)



네이버 웹툰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 추이 (단위: 만명)





올여름, 당신이 가는 해외는 어떨까?

최근 들어 격리 절차가 폐지되거나, 필수 검사도 없어진 여행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처럼 다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여행지를 알아보려 한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 114개 국가·지역

구분	조치 해제 국가 지역
미주(17)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쿠바, 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과테말라, 파나마, 캐나다, 가이아나, 에콰도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바베이도스, 페루, 안티가바루다, 엘살바도르, 벨리즈, 칠레(2023.5.9.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중동(10)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이집트, 레바논,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튀니지
유럽(48)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 영국, 폴란드, 스웨덴, 덴마크, 라트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몬테네그로, 체코, 불가리아, 키르기스스탄, 그리스, 크로아티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이탈리아, 독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에스토니아, 조지아,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러시아, 스페인, 몰타,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타지키스탄, 오스트리아
아·태(20)	몽골, 호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쿡 제도, 사모아, 태국, 비누아투, 파푸아뉴기니,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싱가포르, 피지, 홍콩, 마카오, 통가, 일본
아프리카(19)	가봉, 남아공, 베냉, 르완다, 수단,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카보베르데, 에스와티니, 세네갈, 에티오피아, 감비아, 부룬디, 탄자니아, 잠비아, 적도기니, 우간다, 모잠비크, 코트디부아르



준비서류·절차가 있는 여행지

인도네시아

- 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휴양 여행지 '발리'를 품은 인도네시아 여행을 위해서는 출발 전 최소 14일 전에 백신접종을 2차 또는 3차까지 완료하여 백신접종증명서를 영문으로 준비해야 한다.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백신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 만 6~17세: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만 6세 미만: 백신접종증명서 및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 여행지는 퍼들린둥이 앱을 설치해야 하며, 도착 후 증상이 있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필리핀

- 여행 출발 전, WHO에서 승인한 백신을 각 방법에 맞는 횟수만큼 접종한 뒤에 14일이 지나야 한다. 필리핀은 입국 시 3차 백신접종은 의무가 아니며,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경우도 예방접종 완료자로 분류한다. 백신접종증명서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영문 백신접종증명서(또는 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다. coov앱도 가능하지만 인증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 종이 서류까지 준비한다.
- 필리핀 입국 시 eTravel 등록도 필요하다.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 등을 등록한 후 발급받은 QR코드를 저장하여 관계당국 요청시 제시한다.

중국

- 23. 04. 29. 모든 해외입국자는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검사 또는 항원검사자가 진단키트를 통해 음성 결과가 확인될 시 입국 가능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건강신고표' 작성 필요

미얀마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접종증명서(입국 전 14일 경과)
- 만 12세미만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면제
- (백신접종미완료자) PCR 음성 확인서(48시간 내)
- (공통 구비 서류) 미얀마 국영보험 또는 여타 코로나19 관련 보상이 포함된 보험가입증서(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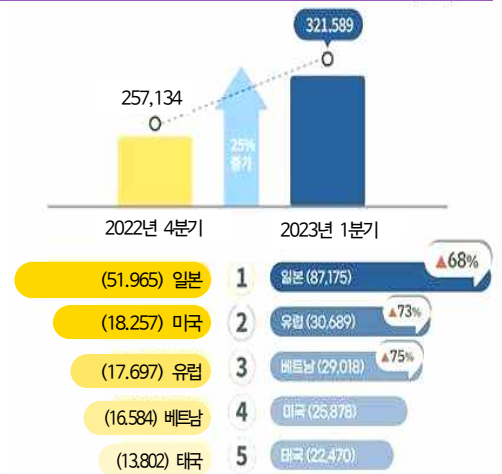
인도

- 공항으로 입국하는 2% 인원내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22.12.24.부)
- 양성 확인시 자가격리 조치 (주재국 권고사항) 공항 도착시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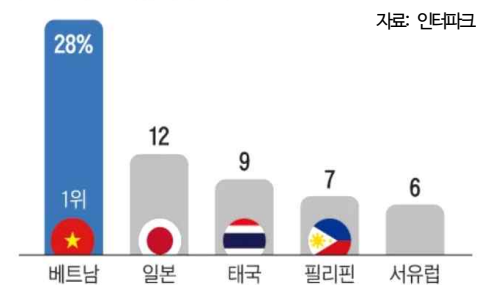
- 23.5.12.부터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외국 인(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 백신접종 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입국제한 조치를 철회(미국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 해제)

'해외여행' 언급량 · 희망 여행지 분석



출처: KPR인사이트 트리/분석기간: 2022.10.1.~2023.03.24

인기 해외여행지 순위 (단위: %)



자료: 인타파크

멕시코

- 입국 시 필수로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미국을 경유할 때 ESTA, 미국 CDC 서약서,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백신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Coov 어플 설치 등이 필요하다.
- 입국 시에는 발열 체크 및 문진표 작성을 하고, 증상이 있을 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이후 상황에 따라 가벼운 증상자는 자가격리를, 중증의 증세가 있는 경우 입원하게 된다.

아르헨티나

- 한국에서 출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르헨티나 입국 시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전에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서 무비자입국 가능 여부 확인을 권고한다. 아르헨티나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뒤 14일이 지나야 하며, 영문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또한 체류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격리나 입원 등의 비용을 제한 없이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입국 24시간 내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권고된다.



아담에 대해 모르는 5가지

아담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런데도 사람들 대부분은 그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만 알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그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복음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몰랐을 수 있는 아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히브리어에 기초한 '아담'

아담(Adam)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인류, 사람, 개인 이름 등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에서는 ‘인류’를 의미하기 위해 ‘adam (אָדָ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창 5:2 참조).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남자와 여자가 둘 다 포함된다. 나중에 창세기 2:7절에서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의 창조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 구절에서 ‘adam’ 앞에는 영어 단어 ‘the’와 유사한 정관사 ha(הַ)가 온다.

이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땅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adamâ (אָדָמָה)’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ha’adam)인 아담은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으며, 그가 첫 번째 사람(‘adam)이라고 배우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단어에 영감을 넣어놓은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에 대한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2. 땅의 흙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창 2:7). 흙(먼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apâr (אֶפֶר, ‘afar’로 발음됨)로써, 이는 마른 대지(dry earth)의 개념을 전달하고 있다. 모세는 그의 시대에 인체의 구성 물질이나 원소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약 3,500년 전에 창세기를 편찬할 때, 이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원소를 땅의 흙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죽어서 썩으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그대로 일어난다. 즉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창 3:19).

물론, 빵을 만드는 사람이 빵을 굽는 것처럼, 적절한 재료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으로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 설계와 복잡한 구성으로 그것들이 결합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인류에게 이성, 지성, 의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고, 사랑하고, 복잡한 수학을 계산하고, 아름다운 예술품들을 만들고, 악기를 훌륭히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흙(먼지)은 아무리 오래 놓아두어도, 이것 중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인류에 대해서 관측하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보다 성경적 설명인 창조가 훨씬 더 적합하다.

3. 남자와 여자 : 갈비뼈의 숫자는 같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하와(Eve)라는 아내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땅의 흙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ribs) 중 하나로 그녀를 창조하셨다(창 2:22). 일부 성경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더 적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며 잘못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 수가 동일하므로, 그들은 ‘잡아냈어!’라고 생각한다. 남자와 여자는 정확히 같은 수인 12쌍의 갈비뼈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성경이 실제로 갈비뼈 수의 차이를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리석은 주장이다. 또한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로 남성 갈비뼈 수의 차이가 예상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고로 손가락을 하나 잃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손가락 하나를 덜 갖고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손가락 수나 갈비뼈 수는 유전적으로 계속 전해지는 염색체(DNA)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는 자연 출생의 자녀를 낳은 최초 세대이며, 그들로부터 모든 인류가 유래되었다. 설사 아담이 그의 평생 갈비뼈 하나가 적었다 하더라도, 그의 모든 자녀는 아담이 처음 시작했을 때와 같이, 24개의 갈비뼈에 대한 암호를 가진 DNA 정보(프로그램)를 물려받았을 것이다. 어쨌든 아담은 갈비뼈가 하나 없는 채로 몇 달 밖에 지내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갈비뼈는 조심스럽게 제거하면, 인체에서 다시 자라나는 유일한 뼈이다. 뼈 주위에는 뼈를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골막이라는 이름이 붙은 얇은 막이 있다. 이 막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갈비뼈가 빠르게 다시 재생된다.

4. 아담의 Y 염색체

인간 유전체는 유전정보를 가진 23쌍(각각의 부모로부터 한 세트씩)의 염색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23쌍 중 하나는 성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은 XX이고, 남성은 XY이다. 남성은 생물학적 아버지로부터 Y 염색체를 물려받는다.

유전체는 돌연변이가 발생하는데, 그것들이 생식세포에 발생하면, 그러한 변화는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 DNA 정보가 복제되는 동안, 이러한 오류도 효과적으로 복사된다. 돌연변이들이 일어나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삼엽충, 상어, 장미, 소나무, 개구리, 악어, 코끼리...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필요한 막대한 양의 유전정보들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돌연변이는 대부분 중립적이며, 자주 해롭다(최근 침묵 돌연변이도 해롭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돌연변이들로 인한 유전적 질환은 6,000개 이상 보고되었다.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화하여 더 나은 존재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퇴화하고 악화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세대마다 약 60개의 새로운 돌연변이들이 추가되어, 유전적 부하(부담)가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남성의 Y 염색체 돌연변이를 조사한 과학자들은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남성은 한 명의 남성 조

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심지어 그를 ‘Y 염색체 아담’으로 명명했다. 물론 진화론자들은 많은 남성이 ‘Y 염색체 아담’과 동시대를 살았지만, 그의 Y 염색체 혈통만이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오랜 지구 연대 틀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한 명의 Y 염색체 조상이라는 발견은 진화 이론가들이 처음부터 예상하거나 예측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의 기록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사실,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Y 염색체와 가장 가까운 공통조상은 노아 임이 틀림없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의 Y 염색체는 노아의 것이며, 그의 세 아들은 노아의 것을 물려받은 것뿐이었다.)

5. 첫 사람

바울은 아담을 “첫 사람”(고전 15:45)이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있다. 이것은 사람 집단이 원숭이 같은 조상 집단에서 진화했다는 주장을 배격한다. 또한 아담은 첫 남편, 첫 아버지 및 기타 다른 많은 것에서 첫 번째였다. 그는 창조주에게 불순종했던 최초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고 시도했던 최초의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뒤이은 많은 사람처럼, 구원자의 필요성을 암묵적으로 부인하고 있었다. 아담의 불순종은 그의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사망을 세상에 가져왔다. 그 결과 전체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 아담과 말쑥하시게 위해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다(창세기 3:8). 그때 아담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데 실패하고, 그가 한 일에 대해 하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과, 그에 대한 교정이 필요함을 부인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성을 물려받게 된 것이다. 성경은 “죄의 삯은 사망이요”(로마서 6:23)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은 인류의 두 머리로서 죄와 사망을 가져온 아담과, 의와 생명을 가져온 예수님 사이의 상세한 대조를 보여준 앞 장(로마서 5장)을 요약하고 있다. 하나님은 창세기 3:15절에서 아담에게 희망을 주셨고, 여기서 구세주가 오실 것임을 간략하게 설명하셨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 15:45)라고 말씀한다. 그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분은 우리가 범한 허물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희생제물로 죽으셨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아담의 죄 많은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보실 것이다(고후 5:17). (창조과학회 제공)



열반의 다이제스트

세계 2억5천800만 명 심각한 식량부족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세계식량계획(WFP) ·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는 '세계 식량 위기 대응 글로벌 네트워크'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극심한 식량 불안'을 겪는 세계 인구가 58개국 2억5천800만 명으로 추산됐다. 2021년(1억9천300만 명) 대비 6천500만 명(33%)이나 급증했다. '극심한 식량 불안'이란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생명이나 생계가 즉각적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유엔은 정의했다. 보고서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부르키나파소, 아이티, 나이지리아, 남수단, 예멘 등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고 짚었다. 레인 폴센 FAO 비상회복국장은 분쟁, 기후변화, 코로나19의 영향, 비료·밀·옥수수·해바라기유의 교역에 영향을 미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식량 위기를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산 밀에 의존해온 아프리카 최빈국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우간다, "동성간 성관계하면 최대 사형"

우간다에서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강력한 반동성애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반동성애 법안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감염자나 미성년자가 동성 간 성관계를 하면 사형까지 선고 가능하며,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이 선고된다. '동성애 미수' 범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성소수자로 확인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과 동성애 의심 행위 신고 의무화 조항은 삭제됐다. 또 동성애로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라도 동성애자와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안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확정된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법안에 거부권 행사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은 법안이 제정되면 경제적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가짜뉴스법' 추진으로 구글과 전쟁

온라인 플랫폼에 가짜뉴스나 불법 콘텐츠를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한 법안 내용을 두고 브라질 정부와 구글과 메타 등 거대 정보기술 기업이 충돌하고 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난 대선 패배는 '투표 조작' 때문"이라는 가짜뉴스로 올 1월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브라질 하원은 가짜뉴스 법안인 'PL 2630'이라는 인터넷 규제법안을 위원회 논의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검색창 첫 화면에 "가짜뉴스법은 브라질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띄웠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구글에 대해 "(가짜뉴스법 관련) 광고를 내리지 않을 경우, 시간당 20만 달러(약 2억 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구글 검색창 첫 화면에서 법안 반대 광고는 사라졌지만, 구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PL 2630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전달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전면전을 예고했다.

北, "사실혼은 자본주의 문화, 엄격 처벌"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사회안전성(한국의 경찰청에 해당)은 '사회주의 제도에 독을 품고 반당적,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징벌한다'는 포고문(경고문의 일종)을 발표했다. 해당 포고문에는 '사실혼 생활을 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4월부터 '8·3부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8·3부부는 혼인신고 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실혼 부

부를 말한다. 사실혼 기간이 1년 이하이면 노동단련대 3개월, 3년 이상이면 2년 이상의 노동교양소 처벌을 받는다. '8·3부부'란 폐기물을 재활용해 추가로 만든 제품인 '8·3 인민소비품'에서 파생된 북한 내 은어로 불륜 남녀를 의미한다. 북한 당국은 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사회의 존립, 발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여기므로 이혼 혹은 사실혼을 사회적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매년 열렸던 퀴어문화축제의 사용을 불허하기로 했다. 당초 오는 7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려던 퀴어문화축제 자리에는 기독교 단체가 주최하는 '청소년 청년 회복콘서트'가 열린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미루다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 서울시가 내놓은 조건은 '신체 과다 노출,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음란물 판매 및 전시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단 하루만 축제 용도로 사용토록 했다. 한편 조직위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괴어나라 퀴어나라'라는 주제로 온라인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기획했다. 7월 1일에는 퀴어퍼레이드를 열기 위해 서울광장 잔디광장, 동편광장, 서편광장 사용을 모두 접수한 상태다.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로 퀴어퍼레이드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년 내 "비서·은행원 사라질 것"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2023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69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8300만 개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직업별로는 인공지능(AI) 전문가가 늘고 단순 사무직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없어질 직업은 비서, 은행출납 직원, 우편배달부, 티켓 판매원 등이 거론됐고 늘어날 직업으로는 AI·머신러닝 전문가, 정보보안 분석가, 재생에너지 엔지니어 등

이 꼽혔다. 그럼에도 업무자동화는 기존 전망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기업들의 업무 자동화 비율은 2020년 보고서 발간 당시보다 1% 포인트 증가한 34%로 집계됐다. 당시 기업들은 '향후 5년 내 업무의 47%가 자동화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현재 응답자들은 이러한 기대치를 42%로 낮췄다. 골드만삭스도 생성형 AI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3억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보다 개인서비스요금·외식비 꺾충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지역 목욕비(성인 일반대중탕 1회 요금)는 2월(9154원)보다 461원 오른 9615원이었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8154원)보다 17.9% 올랐다. 지난 3월 소비자 물가는 4.2% 인상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4배 이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세탁비(다림질을 포함한 신사복 상·하의 드라이클리닝)도 지난해 3월 7462원에서 8692원으로 16.5% 뛰었다. 외식비도 지난 3월 서울

지역 자장면 보통 1인분은 16.3%, 삼계탕은 12.7%, 김밥 한 줄은 10.3% 올랐다. 냉면은 7.3%, 비빔밥은 8.6%, 칼국수는 7.6%, 김치찌개 백반은 7.5% 상승했다. 개인 서비스요금과 외식비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많이 오른 것은 원·재료가격 급등에 더해 인건비·임대료 등이 동반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질임금은 감소하거나 짝퉁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철저한 위생관리, 건강을 지킨다

기온이 높아지는 6월부터는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고, 야외활동이 증가하여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수인성·매개 감염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탈코로나로 위생관념이 느슨해지고, 사람들 사이의 대면 접촉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수인성 감염병으로 '집단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수인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섭취로 인하여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장티푸스/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또는 파라티푸스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	세균성 이질 이질균 감염에 의해 급성 염증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	비브리오 패혈증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장출혈성대장균의 감염에 의하여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	콜레라 콜레라균 감염에 의한 급성 설사 질환
예방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물 끓여 마시기, 음식물 위생관리, 환자격리 및 물품 관리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안전한 음식 섭취 (특히 살균된 우유 섭취)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특히 고위험군 환자)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 바닷물에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	올바른 손 씻기, 육류 제품은 충분히 익혀서 먹기(쇠고기는 섭씨 75도 이상으로 3분 이상 가열), 야채류는 깨끗한 물로 잘 씻어서 섭취	올바른 손 씻기, 음식물 위생관리, 물은 충분히 가열한 뒤 조리하거나 섭취, 콜레라 환자와의 접촉 최소화 및 물품 관리
원인	장티푸스/파라티푸스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섭취	이질균에 오염된 식수 또는 음식물 섭취,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 직·간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오염된 물 또는 음식섭취 (우유 등에 의한 경구 감염과 오염된 식수 등을 통한 수인성 감염) 사람-사람 간 전파 차단 중요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이나 분변, 구토물, 음식(덜 익은 해산물)섭취
증상	고열 지속, 오한, 두통, 복통, 설사나 변비, 피부발진 등	고열, 구역질,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혈변, 점액변), 잔변감 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 증상 발생, 1/3은 저혈압 동반,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피부병변이 생기고, 주로 하지에 발생	설사(경증, 수양성 설사부터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 환자의 약 10%에서 용혈성요독후군 발생 가능(10세 미만 소아)	복통이나 발열을 동반하지 않는 급성 수양성 설사(물 설사), 오심, 구토 등
치료	발병 초기에 항생제 치료를 하면 사망률은 1% 이하로 떨어짐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보존적 치료, 항생제 치료	병변 절제(괴사조직 제거 및 근막절개술), 항생제 치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보존적 치료, 항생제는 용혈성요독후군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권고하지 않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보존적 치료, 항생제 치료는 중증환자에게만 권고



여름에도 '심혈관질환' 주의하자

심혈관질환은 보통 추운 겨울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름도 심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다.

혈관 막는 혈전 생성위험↑

여름은 실내외 큰 온도차로 인해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간다면 여름은 땀이 많이 나고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다. 끈적해진 혈액이 뭉쳐지면서 혈전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발생위험이 커진다.

홍통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

여름에는 심혈관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발견이 어렵다. 혈전에 의한 심근경색은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는 데, 여름에는 더위 탓으로 여기기 쉽다. 수축된 혈관은 적절한 온도변화에 다시

이완될 수 있지만 한 번 생긴 혈전은 금방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혈관을 뚫지 않으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고혈압 환자 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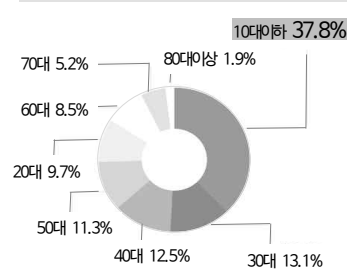
고혈압으로 혈압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 혈액량이 줄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져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수분 보충과 휴식은 충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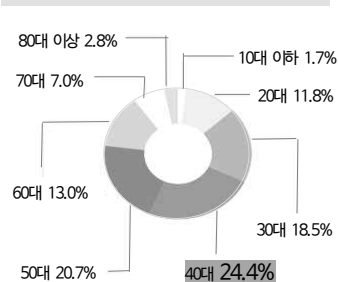
여름철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한다. 이는 혈전 생성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하루 5잔 이상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한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갈증을 잘 느끼기 때문에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커피나 녹차 등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수분을 고갈시키므로 수분 보충은 물로 한다.

빅데이터로 보는 건강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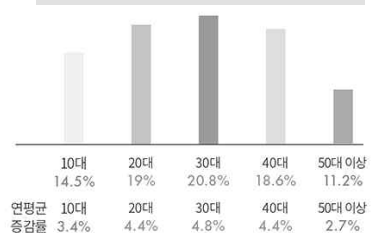
알레르기비염 진료 인원(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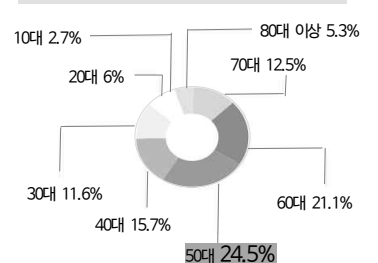
연령대별 공황장애 진료 인원(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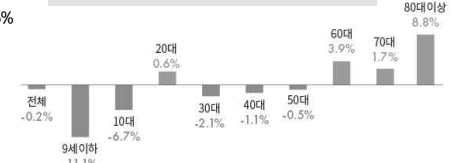
이성증 진료 인원 증감률(2014~2018년)



대상포진 연령대별 진료 인원(2018년 기준)



간선 연령대별 연평균 증감률(2014~2018년)



‘예수 사건’, 왜 모든 사람이 한 번은 풀어야 할 딜레마인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누구나 한 번은 피해 갈 수 없이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이 ‘예수 사건’이라는 미스테리는 또는 인류 역사 최대의 딜레마는 어떻게든 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그분에게 실족할 일도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이럴 때 그분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한 발짝만이라도 더 진지하게 나와서 한 번 살펴보고 싶지 않은 이들, 그런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족은 실족하지 않을 기회가 많았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그분을 한 사람의 평범한 역사적 존재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역설적인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최대 미스테리는 예수님이시라고 그동안 제가 계속 강조해 왔는데요. 그분이 이 땅에 한 번 생존한 적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큰일 나는 일,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한 사람은 C. S. 루이스의 말대로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이 세 가지 가능성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진짜 이상한 분이라고 느끼면 서부터, 그분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수수께끼 같은 존재라고 자각하면서부터, 더는 그의 존재가 적당히 숨어 있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상식적으로 지나치면 영원히 지나치고 말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류 역사에 영원한 발자국을 한 번 남기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실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분으로 인한 심판도 누구에게든

한 번은 지나가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적이 없다면 차라리 속 편할 뻔했습니다. 괜히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애매하게 죄다 엮이게 되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예수 사건’을 그분이 불세출의 종교적 슈퍼스타가 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오히려 진짜 전모가 잘 안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만큼 유명하고 예수님만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신 분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도 정보망도 지금과는 완전 판판인 환경에서 당시 나사렛은 강촌 취급을 받았는데, 이 강촌 출신의 무명의 순회설교자, 떠돌이 마술사, 이런 별명으로 불린 한 목수 청년이 눈에 들어오면 비로소 온갖 잡다한 포장이 벗겨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주된 관심사는,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속국들 가운데서 정치적인 민중 봉기가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 변두리 속국의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별 볼 일 없는 땅에서 단순한 종교적 시냇거리의 희생물로 처형된 한 천민 출신 선동가의 죽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당시로써는 한 줄의 뉴스거리조차 되기 어려웠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1세기 로마 역사가들은 주로 정치적인 주요 사건들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런 굵직한 사건들을 취급할 때 겹다리로 떨어질 경우 지나가는 말로 잠깐 언급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런 정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고도 시큰둥하게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 짧은 언급, 이런 것보다 더 비조작적이고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 증거도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역사가들의 공인된 책들에 ‘크리스투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아주 짧은 언급인데, 그런 것이 사실은 상당히 역사

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예수님의 실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당시 목수는 돌이나 쇠, 목재로 자잘한 농기구를 만들고, 크고 작은 건축일까지 쟁긴 막노동 잡역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성화 속에 나오는 그런 여리고 운유한 이미지의 서양 남성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근육질의 중동 남자였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숭앙을 받는 어떤 위대한 존재나 사건을 신화로 만들려면 적어도 10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사건’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많은 목격자에 의해 역사적인 사실로 굳어졌고, 그를 죽인 자들이 살아 있을 때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6절에서 동시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약 5:6)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들을 당시 그 의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너희’라고 지칭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아주 가깝게 언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든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불품없는 목수로 이 땅에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군가가 정말 안다면, 그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평생을 무명으로 살고 모든 걸 다 드러도 아쉽거나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말입니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온 인류 각자에게 친히 보이신 이 엄청난 사랑을 올바르게 알고 나면,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 곧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안환균 목사

- 그말씀교회 담임, 변증전도연구소장
- <기독교 팩트체크>(두란노),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규장)

변증전도연구소장인 안환균목사는 철저한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아이들을 위한 논리와 내용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준다. 이 콘텐츠는 유튜브 '5분 갓토크'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 교계 소식 ■

미 텍사스 의회, 교실에 십계명 영구게시법 통과

미국 텍사스주 의회는 공립학교의 모든 교실에 십계명을 영구적으로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기도하고 신앙서적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텍사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각 교실에 십계명

을 게시해야 한다. 상원법안 1515는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설치하는 방법과 관련된 현행법을 수정한 것이다.

워싱턴주 공립학교의 축구 코치인 조 케네디는 경기를 마친 후 항상 경기장에서 기도를 해왔다. 그러나 그는 2015년 경기장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브레머튼 학교로부터 해고를 당했고, 법정 다툼 끝에 복귀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필 킹 의원은 “현재 텍사스에는 이러한 요구사항은 없으나, 케네디 대 브레머튼 학교 사건에 대한 2022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러한 제안이 최소한 법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상원 법안 1515가 발효된다면, 텍사스 전역의 모든 학생들에게 미국과 텍사스 헌법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십계명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것”이라고 했다.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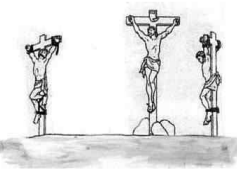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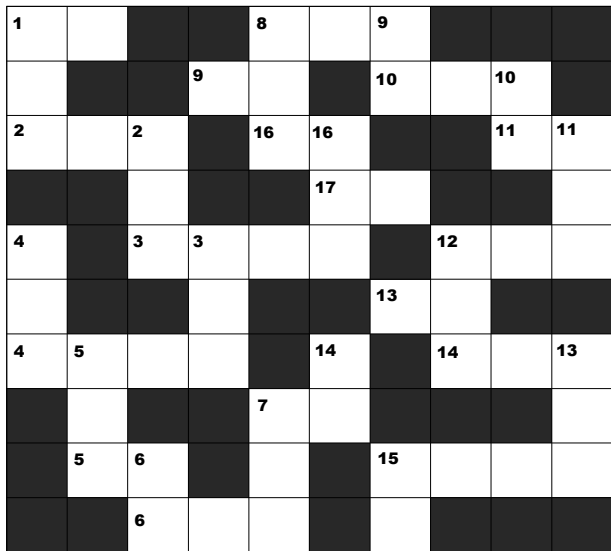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가로문제

-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
- 별로 아이를 때릴 때나 마소를 부릴 때 쓰는 가늘고 긴 나뭇가지
- 열 가운데 여덟이나 아홉이 그렇다는 뜻으로, 거의 예외 없이 대개가 그러함
- 정면으로 곧게 비치는 광선
-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함
- 병적으로 깨끗한 것에 마음을 쏟고 집착하는 증상
- 몸이나 정신에 아무 탈이 없이 튼튼함
- 강이나 골짜기의 물을 막거나 또는 수로 등으로 물을 끌어들이 만든 인공 못
- 용무를 위해 원래 근무지에서 다른 어떤 곳으로 나감
- 못 쓰게 되어 내버린 물건

-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꾸려 가는 사람
- 병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
- 누가 있는 줄을 짐작하여 알 만한 소리나 기색
- 대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빠른 속도로 열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땅속으로 굴을 파서 설치한 철도
- 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힘
- 어떤 일이 되어 가는 데에서 매우 어려운 순간이나 국면
- 몸을 다쳐 부상을 입은 자리

세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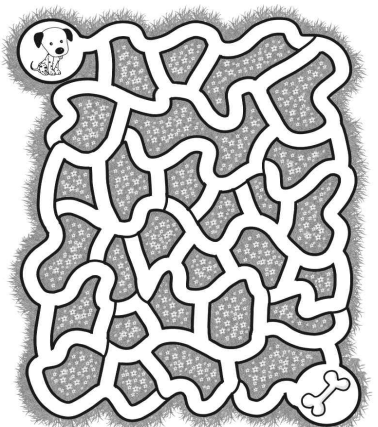
- 어떤 특정한 물건을 벌여 놓고 일반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보이는 모임
- 무리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 차도에서, 도로의 중앙에 그어 자동차의 주행 방향을 경계 짓는 선
- 구성원 사이의 체계나 연관 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짜여진 조직
-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가짜
- 민사나 형사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법률에 따라 변론을 거쳐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 기억력이 좋지 못하여 기억해야 할 무언가를 잘 잊어버림
- 물건이나 재화 따위를 모아서 간수하여 두는 창고
- 종이에 인쇄해서 만든 화폐
- 물품의 값
- 어떤 일을 직접 일으킨 주동 인물
- 바다나 호수의 주위에 둑을 쌓고 그 안의 물을 빼내어 만든 땅

- 행정, 군사상의 필요나 이유로 거처가 강제로 철거된 사람
-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나거나 강의를 끝마침
- 가혹하게 비평함
-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

<지난 5월호 정답입니다>



미로찾기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이벤트데이 ■ 2023년 4월 30일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목장예배



서울목장



원종목장



남동목장



삼산1목장



부개목장



비전목장



새가족심방(강경례/삼산2목장)



사업장심방(유경호·이은주/부평목장)

전도
- 초등부
- 영아부



초등부



영아부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요셉 청년 이성령

제 이름은 이 성령입니다. 저의 집안의 믿음의 시조이신 친할머니께서 오직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룩한 영혼이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며 조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아버지와 지금은 ‘전도사’가 되신 어머니 밑에서 건강하고 성실한 교회생활과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도, 그리고 할아버지의 신앙 지도가 저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유아기부터 중학교까지의 교회생활과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은 언제나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하나님임을 보게 하였습니다. 매일 매일의 성경 읽기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가정예배를 통해 저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인지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교회에서의 수련회집회와 여러 신앙 훈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

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과 그 신자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며 실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경험이었습니 다. 한편, 저는 가정에서 신학생인 누나와 늘 기독교에 대하여 대화하며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청소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책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에게 구하는 내 모습과 일상생활에서 마음으로 짓는 저의 죄를 보며 저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역대하 6장 3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 말씀에 저는 생각을 고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돌아보신다는 것을

묵상합니다. 저는 이제 더욱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참된 기도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생활을 원합니다. 19살에 접어들며 저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하여 내가 신 앞에 홀로 서고 싶습니다. 최근, 나의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값을 나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 묵상하며 어머니와 함께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과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하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제, 제가 믿고 고백함으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었음을 압니다. 저는 이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 앞으로

의 저의 인생을 계획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의 신앙과 삶을 위해 교회의 예배와 성경과 기도예배에 매진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 통로인 전도가 저의 의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온 세계에 성경 말씀이 전하여지는 선교에 필요한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고 저의 진로를 개척해가는 것에 있어서 저는 세상과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제 이름이 밝히는 대로 저는 교회와 이웃에게 기독교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 생활을 통해 나타내는 믿음의 발걸음을 험하게 내디딜 것을 입교에 임하며 더욱 다짐합니다.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예,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wch.or.kr
-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 C3TV 인터넷 방송
-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새벽	월~금	오전 5:10	지하1층 본당
	토	오전 6:00	지하1층 본당
주일	1부	오전 9:00	지하1층 본당
	2부	오전 11:15	지하1층 본당
	3부	오후 2:00	지하1층 본당
	4부(청년예배)	오후 4:00	지하1층 본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지하1층 본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8:00	지하1층 본당
주일랜드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2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20	3층 조이랜드홀
	중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국제사역	고등부	오전 9: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영어예배	오후 2: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미얀마예배	오후 3: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카렌족예배	오후 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블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 주소: (우) 21343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 전화: 032) 501-9686 ~ 7
- Fax: 032) 503-9686
- http://www.wwch.or.kr

2023 상반기 세이레기도회

2023
생명의 강에
삶을 던져라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 47:5

2023.5.22(월)-6.10(토)

매일 오후 8시 / 토 오전 11시 / 본당

1주 Repent 생명의 강으로 들어가라

2주 Restoration 생명의 강에서 유명하라

3주 Revival 생명의 강으로 흘러넘쳐라

* 지금 기도보다 위대한 결단은 없습니다.

* 지금 기도보다 위대한 반전은 없습니다.

강사 : 박인용목사(월드와이드교회 담임)외